

‘코로나19’ 여파... 지역 문화예술계도 ‘올스톱’

ACC 3월 8일까지 임시휴관...유스퀘어 문화관 공연 등 연기
국립광주박물관·광주시립미술관·국립나주박물관 등 휴관
시립극단 ‘맹진사댁 경사’ 공연·문화회관 갤러리 전시도 취소

‘코로나 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역 문화기관이 휴관하거나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3월 8일까지 임시 휴관을 결정했다. ACC는 24일 회의를 통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응책으로 문화전당 임시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어린이문화원 일부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3월 8일까지 휴관함에 따라 문을 닫았다.

26일 예정됐던 ACC 브런치 콘서트 ‘TIMF 앙상블 × 베이시스트 성민제’의 ‘Twist in Classic’은 오는 5월 15일(오전 11시)로 연기됐다.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펼쳐질 예정이던 어린이 공연 ‘나무의 아이’ (3월 26일-29일)와 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자 면접심사, 청소년 프로그램 신청도 연기됐다. 25일 예정이던 자원봉사자 면접은 향후 일정을 재공기하기로 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에 맞춰 오는 3월 9일로 순연됐다.

관람객들의 전시 해설을 도왔던 도슨트 해설 또한 별도 공지까지 잠정 중단됐으며 ‘코끼리 날다 광주에서’ 등 현재 진행중인 전시도 휴관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

지역 국립박물관도 24일부터 잠정 휴관에 들어갔다. 나주박물관은 24일부터, 광주박물관은 25일부터 잠정 휴관에 돌입했으며 이들 박물관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이에 따라 재개관 여부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4일 회의를 갖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5일부터 잠정 휴관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립미술관은 본관을 비롯해 하정음미술관, 광주시립사진전시관, G&J광주전남갤러리 등 4개 전시관을 대상으로 하는 휴관은 향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돼 있던 하정음미술관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행사도 취소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립미술관과 광주YMCA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술관 문화센터 복합기 개강도 오는 3월 3일에서 잠정 연기했다. 문화센터는 지난 6일부터 2월 29일까지 어린이·성인 대상 19개 교육프로그램 강좌를 휴강한 바 있다. 또한 시립미술관은 지난 5일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 6명을 귀국·귀가 조치한데 이어 서울 G&J광주전남갤러리에서 개최하는 ‘광주청년작가들 발돋움광전(8일~3월 2일)’ 전시개막식을 취소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의 공연, 전시 등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광주시립극단과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예술 감독을 중심으로 작품에 따라 배우들을 모집하는 객원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배우를 모집하는 오디션 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시립극단의 경우 2월 중 진행 예정이던 제15회 정기공연 ‘맹진사댁 경사’ 배우 오디션이 열리지 못하게 됨에 따라 4월과 6월 두 차례 계획된 공연을 모두 취소했다. 6월말 상연 예정인 시립오페라단의 ‘박하사랑’은 아직 기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공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디션 일정은 3월 말에 잡혀있다.

두 단체를 제외한 합창단 등 나머지 예술단체의

공연은 5월이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회관은 광주시립합창단 183회 정기공연(3월19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봄의 향연’ (3월28일) 등 3월 예정 공연을 당초 4월로 미루는데 이어 24일 회의를 갖고 무기한 연기로 방침을 바꿨다.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전시 일정도 대폭 수정됐다. 27일-3월22일 계획된 ‘시간 속의 도시 : 조형 21회’ 전시는 취소됐고, ‘화양연화 : 강남구 초대전’ (3월27일-5월10일)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회관은 또 2-3월 진행 예정이던 광주 시립 예술단 비상임단원 모집도 잠정 중단했다.

그밖에 유스퀘어 문화관은 이정란 첼로 리사이틀(3월5일), 앙상블 좋은 친구들 정기 연주회(3월 7일) 등 3월 공연을 연기·취소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바람이 부는 날’

‘대숲 맑고 매화 야위다’... 봄을 기다린다

오전규 화백 개인전, 27일~3월 11일 무등갤러리

묵은(木雲) 오전규(74) 화백은 45년 넘게 스승으로 모셨던 아산(彌山) 조방원(1926-2014) 선생이 오래 전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마음에 담았다. ‘일생묵노(一生墨奴)’. 그는 늘 곁에 두는 벼루에 글씨를 새겨 그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평생 수묵과 함께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오전규 화백 개인전이 오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동구 예술길 18-1)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최근 2-3년동안 작업한 작품 35점을 만날 수 있다.

‘대숲 맑고 매화 야위다(竹海靑靑)’라는 전시 주제처럼 화폭에 가득 피어난 건, 푸른 대나무와 화사한 매화다. 여기에 겨울을 뚫고 피어난 동백과 가을 코스모스가 함께 자리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매화는 활날리는 눈발과 어우러진 ‘설매(雪梅)’,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홍매(紅梅)’ 등 저마다의 향취를 뽐낸다.

이번 전시작은 채색화가 주를 이룬다. 자칫 들떠 보일 수 있는 밝은 원색들이지만 묵직한 먹빛과 여백이 어우러져 차분한 느낌을 준다. 그의 작품 세계를 ‘담백하고 건강한 시적 감수성’이라 평한 미술평론가 김상철의 말처럼 삶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들은 소박한 일상의 기록이기도 하다. 담백하고 간결한 작품들은 동화적 느낌도 난다.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사색에 잠기고, 뒷집 지고 천천히 매화구경에 나서고, 마당에서 꽃을 쓸며 한나절을 보내기도 한다.

오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법정 스님이 쓰시던 낡은 나무 의자를 소재로 한 작품들도 선보인다. 오랫동안 송광사 회보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불일암 등에 자주 오르내리며 이 ‘의자’를 만났다. 담담한 수묵담채로 여백의 미를 한껏 살린

‘비움’을 비롯해 붉은 매화와 어우러진 ‘홍매와 의자’, 한마리 새가 외로이 앉아 있는 ‘적(寂)’ 등이다.

화사한 채색 작품들도 좋지만 ‘공산무인(空山無人)’, ‘조선 소나무’처럼 묵직하고 담백한 수묵의 먹맛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또 장엄한 산세를 간결하게 묘사해 관람객을 압도하는 150호 대작 ‘맥(脈)’과 실제 신문 위에 진정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흐드러진 매화를 그려넣은 ‘대춘(待春)’ 등은 흥미로운 작품이다. 그밖에 유일한 서예작품인 ‘용술(容壽)’은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용술은 ‘무릎을 겨우 들여놓을 만한 작은 집’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번 전시가 물질주의에 빠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청명하고 맑은 대숲과 그윽한 향기나는 매화경에서 모두들 한 걸음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 화백은 작가의 말에서 “나의 작품에 화선지에 바람이 보이고 물소리가 들리는 풍경을 담으려 마음을 보낸 것들”이라고 말했다

오 화백은 기회가 닿는다면 앞으로 화문집(畵文)을 내고 싶다고 했다. 그의 정갈하고 사색적인 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림과 어우러진 글맛을 기다려도 좋을 듯하다.

지금까지 8차례 개인전을 연 오 화백은 허백련 미술상 본상, 대동전통문화대상, 전남도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의미술대원 심사위원, 아산미술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초대 일시 27일 오후 3시~6시30분.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코로나 여파로 지역 문화기관이 잠정 휴관하거나 행사를 취소 연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시 전문 계간지 ‘시산맥’ 2020 봄호 발간

선혜경 시인 ‘빗방울은...’ 등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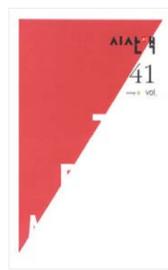
광주일보와 함께 동주문학상을 운영하는 시 전문 계간지 ‘시산맥’이 2020 봄호(통권 41)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2020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선혜경 시인의 ‘빗방울은 몇 겹의 하늘을 깨고 날아나는지’와 2020년 시산맥 신인 시문학상 수상작 한상진 시인의 ‘아스피린의알리바이’ 등이 수록돼 있다. 또한 선혜경 시인의 신작시 ‘놀이터’, ‘비문중’과 한상진 시인의 ‘빗소리’ 등 4편도 담겨 있

어 문단에 갓 등단한 신예 작가들의 문학적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

눈여겨 볼 시들은 제10회 시산맥작품상 후보작품들이다. ‘계단이 많은 실내’ (김미령), ‘칸나’ (김신용), ‘잉여의 나날’ (서영택), ‘물집’ (조국래), ‘포토그래피’ (최지하)는 다양한 시를 접하는 독자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이밖에 ‘시산맥이 찾아가는 시인’에서는 현대문학으로 등단해 ‘물보다 낮은 집’의 김명리 시인을 조명했다. 신작시 ‘저렇듯 작은 기미들이’와 근작시 ‘피웠는가 하면’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곽문연 시산맥시회고 문은 권두언에서 “동주 문학상은 시산맥 시회 회원 전원이 참여하여 1차 추천을 하고 저명한 문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엄선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며 “또한 ‘시산맥’은 모든 회원이 공동의 주제로 쓰는 짧은 시의 향연은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지면으로 사랑과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산문화재단,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 지원’ 대상자 모집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은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 지원’ 대상자를 오는 5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뛰어난 문학성으로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을 영여를 비롯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등으로 번역·연구하고 해당 언어권에서 출판해 보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번역 지원 신청자는 외국에 소개할 가치 있는 한국문학 작품 또는 제27회 대산문학상 수

상작인 오은 시집 ‘나는 이름이 있었다’, 조해진 소설 ‘단순한 진심’ 중 하나를 번역하면 된다. 선정된 번역가에게는 언어별로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연구 지원 대상은 외국에서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학생, 번역가, 연구기관 등이다.

소정 양식 신청서와 공동번역자 이력서, 번역 원고, 번역 대상 원작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